

보도 일시	배포시점	배포 일시	2022. 6. 17.(금)
담당 부서	거대공공연구정책관 우주기술과	책임자	과 장 김기석 (044-202-4640)
		담당자	사무관 김 인 (044-202-4644)

누리호, 산화제탱크 레벨측정 센서 신호 이상 개선 완료

- 6월 21일, 누리호 2차 발사 실시 -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이종호, 이하 ‘과기정통부’)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(원장 이상률, 이하 ‘항우연’)은 6월 15일 발견된 누리호 1단 산화제탱크 레벨 측정 센서의 신호 이상에 대한 기술적 개선 조치를 완료했으며, 6월 21일에 누리호 2차 발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- 누리호는 6월 15일 발사대에서 조립동으로 이송되었으며, 6월 16일부터 항우연 연구진들이 본격적인 점검에 착수하였다.
 - 연구진들은 레벨측정 시스템 전반*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, 신속한 점검을 위해 작업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순차적인 점검을 실시하였다.
 - * , !호를 모아 처리하는 신호처리박스과 이와 관련된 전선으로 구성
 - 우선 누리호 1단의 점검창을 개방하여 신호처리박스 및 이와 관련된 전기신호부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, 해당 부분에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.
 - 이에 연구진들은 레벨센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코어부의 고장을 확인하고 코어를 신품으로 교체·장착하였으며, 이후 전기 신호 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한 결과 정상 작동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.
 - 당초, 연구진들은 레벨 센서 점검을 위해 1단과 2단 연결부를 분리하려 했으나, 미분리 방식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단간 연결부를 분리하지 않고 점검을 실시하였다.
- 연구진들은 앞으로 1~2일에 걸쳐 누리호의 전기적인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며 추가적인 점검 과정에서 이상이 없다면 기술적으로 6.21(화)부터 발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.

-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“현재 누리호에는 화약류가 장착되어 있어 유공압 점검 등을 추가 수행하기에는 작업자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, 향후 기상상황을 고려할 때 차주 하순으로 갈수록 기상상황이 악화될 전망이므로, 이런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발사관리위원회에서는 6월 21일에 누리호 2차 발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.” 고 말하면서,
- “다만, 향후 기상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.” 고 밝혔다.

<주관기관>	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	책임자	발사체 추진 오승협 (042-860-2434) 기관개발부장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